불교총지종 제17대 신임 법등 통리원장 취임 기자 간담회

바른 수행과 실천으로 종단과 불교발전에 앞장

▲ 제17대 신임 법등 통리원장 취임 기자 간담회

불교총지종 제17대 신임 통리원장 법등정사는 4월 30일 오전 11시 통리원 집무실에서 취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통리원장 법등정사는 불법홍포와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계 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수행과 능력이 모자라는 제가 부처님의 가지력과 효강 종령 예하 및 총지종 전 스승님과 교도님들의 서원으로 오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무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며 교계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등 신임 통리원장은 회견에 앞서 취임 소감으로 "원정 대성사께서 입교개종한 불교총지종이 올해로 총기 4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총지종은 내, 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하였습니다. 전 세계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인 『국제재가불자대회』의 설립하여 지금은 내실있는 국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개최한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는 아름다운 찬불가의 음성공양으로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며 그동안 총지종이 이룩한 대. 내외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뜻을 밝혔다.

"불교총지종의 오랜 숙원이었던 괴산 수행복지타운이 지난 4월 11일 그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건립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 되겠지만 수행과 복지의 중심 도량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며 교도 복지의 새 장을 열어갈 괴산 수행복지타운 건립에 앞장설 것을 피력했다. 또한 "저는 그동안 교화와 수행의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 왔습니다. 종무 행정에는 다른 종단의 원장님들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임중 가능한 한 불교 행사와 대 사회적 역할에 적극 참여 하고자 합니다."며 열린 종무행정과 지속적인 종책 연구 개발, 대 사회적 역할 강화 등 정통 밀교종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신임 법등 통리원장의 회견문 낭독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기자들의 주요 질문 내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출가 승직자 양성'에 대한 문제, '괴산 수행복지타운의 건립이 가지는 의미'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었다.

법등 신임 통리원장은 총지종 출가 승단 확보와 교육 문제는 중앙교육원을 중심으로 능력 있고 참신한 출가 승직자를 꾸준히 확보하여 교육을 진행 중이며, 또한 괴산 수행복지 타운은 장기적인 계획 하 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목표한 대로 꾸준히 건립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

통리원= 김종열 기자

불기2557년 주요종단 종정 봉축 법어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종 종정 법원 진제 대종사

"참나를 깨달아 진리를 이루자"

세상 사람들이여,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한 편으로는 일체중생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일상생활 속에 참 나를 찾을지어다.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가 참나 가운데 다 갖추어져 있음이니,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깨달아 만사람을 진리의 국토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갚는 단 하나의 길이로다.

대한불교 태고종

태고종 종정 혜초 대종사

"진리의 눈으로 안락정토를 가꾸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진리의 마음과 눈으로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청정한 안락정토를 만들어 인류가 하나의 자유공동체로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릇된 욕망을 버리고(捨), 비우면(空), 수용과 절제할 때 지혜가 열려 광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며 모두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함께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노력합시다.

대한불교 천태종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

"참으로 존귀한 삶의 주인공"

생명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 예배하오니
모든 존재에게 축복 있으라.
그대 비록 번뇌에 묶여 헤매고 있으나
대자비로 모두를 구제하신다네.
당신은 그대로 세상의 주인공
물질과 명예에 그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
밝게 열린 날,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진각종

진각종 총인 성초

"과학 물질시대의 청량제가 되자"

금강합장 정성 모아 부처님오심을 봉축합니다. 그 옛날 룸비니동산에 꽃비 뿌리며 오시듯이, 여기 사바의 중생들을 보살피며, 다시 그 모습 나투시는 부처님께 귀명하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미증유의 세상을 열어가고, 물질문명이 베푸는 더 없는 풍요의 세상에서, 오늘도 세사(世事)의 깊은 시름소리는 끝이 없어나, 부처님의 지비(智悲)의 청량제로써 맑게 녹여 갑시다. 시공(時空)을 넘어 오시는 부처님의 자수(慈手)가 세간사의 뭇 고뇌 녹여 주시도록 정진합시다.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강순시	4/12	10,000
개천사	무명씨	4/18	30,000
건화사	이연호	3/30	5,000
건화사	이연호	4/8	5,000
관성사	황성녀	3/28	10,000
관성사	박현숙	3/28	10,000
관성사	인 선	4/22	20,000
관성사	박현숙	4/23	10,000
관성사	김홍조	4/25	10,000
기 로	대 관	4/22	10,000
기 로	대자행	4/22	10,000
기 로	밀공정	4/22	10,000
기 로	법수원	4/22	10,000
기 로	법장화	4/22	10,000
기 로	법지원	4/22	10,000
기 로	불멸심	4/22	10,000
기 로	사홍화	4/22	10,000
기 로	상지화	4/22	10,000
기 로	수증원	4/22	10,000
기 로	총지화	4/22	10,000
기 로	선도원	4/22	10,000
기 로	해 정	4/24	10,000
단음사	법연지	4/17	10,000
덕화사	하순옥	4/16	5,000
만보사	정덕순	3/28	10,000
밀인사	정정희	3/28	5,000
밀인사	이재갑	4/14	10,000
밀인사	이채원	4/14	10,000
밀인사	신정회	4/15	233,000
벽룡사	무명씨	4/3	10,000
벽룡사	무명씨	4/3	10,000
벽룡사	양정현	4/10	10,000
벽룡사	양지현	4/10	10,000
선립사	심지장	4/16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4/11	40,000
수인사	김봉기	3/27	10,000
수인사	정순득	3/28	10,000
승천사	원 봉	4/12	10,000
승천사	지선행	4/12	10,000
실보사	이순옥	4/1	10,000
실보사	조순애	4/12	70,000
실지사	류승태	4/25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3/26	30,000
정각사	김문수	3/27	10,000
정각사	구정희	4/12	20,000
지인사	지 성	4/12	10,000
지인사	승효제	4/12	10,000
총지사	법 등	4/2	20,000
혜정사	조성기	3/28	10,000
혜정사	무명씨	4/15	10,000
화음사	강순란	4/3	5,000
흥국사	지 정	4/12	20,000
	김갑선	4/19	10,000
	최영례	4/22	10,000
	무명씨	4/24	30,000

2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8

사념처 수행

철학박사 **화 령**
(중앙교육원장)

정지(正知)

정지(正知)는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는 의미가 있다. 정지는 범어로 삼빠자나(Sampajāna)라고 하는데 이 말은 sam과 pa와 jāna로 분석할 수 있다. sam은 '정확하다', '완전하다'는 뜻이다. pa는 '직접적' 혹은·'초월적'이라는 의미가 있다. jāna는 '알다', '철저하게 알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Sampajāna라고 하면 '완전히 꿰뚫어 알다' 혹은 '정확하게 실상을 알다'라는 뜻이 된다.

정지관(正知觀)을 시시계념관(時時系念觀)이라고도 하는데 '언제나 잊지 않고 마음을 붙들어 매는 관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사위의관(四威儀觀)이 발전한 것으로서 행주좌와는 물론 몸의 모든 동작과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말하는 등의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이고 연속부단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몸과 언어, 마음의 모든 것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사물의 실상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념처경》에서는 몸과 입에 대한 정지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또한 정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바르게 살피지 못하면 신체의 동작과 언어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지에는 ①이익정지(利益正知), ②적의정지(適宜正知), ③행처정지(行處正知), ④불치정지(不痴正知)의 4가지가 있다. 이익정지는 행동의 목표를 잘 알아차리고 그러한 목표가 법도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적의정지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행처정지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행동을 할 때에도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불치정지는 행동을 하나의 무아의 과정으로 보고 컨트롤할 자아라는 존재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쉬운 예를 들자면 식사를 할 때에 음식물의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여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익정지이다. 적의정지는 음식물의 맛과 관계없이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몸을 편안하게 한다고 바르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행처정지이다. 불치정지는 '내'가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명색의 상속취산(相續聚散)과 생멸의 과정일 뿐이며 모든 것이 오온의 작용으로서 무상하고 고(苦)이며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관조하는 것이다.

네 가지 정지로써 몸과 마음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사위의관의 구체적 실천방법

*이익정지(利益正知)

이익정지는 유익정지(有益正知)라고도 하며 마음에 어떤 동기가 있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진실로 이익이 되는가 어떤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말하자면 행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행위가 진실로 이익된 것인가를 바르게 살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법에 의지하여 우리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목표를 잘 생각해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생각이 내키는 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가 많다.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을 경우, 혹은 반드시 충동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욕심이 앞서 행동을 했을 경우 진실한 이익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이익정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목적성을 뚜렷이 해주고 신 · 구 · 의의 행위에서 맹목적이고 산란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들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자신은 물론 남에게도 유익한 말과 행위만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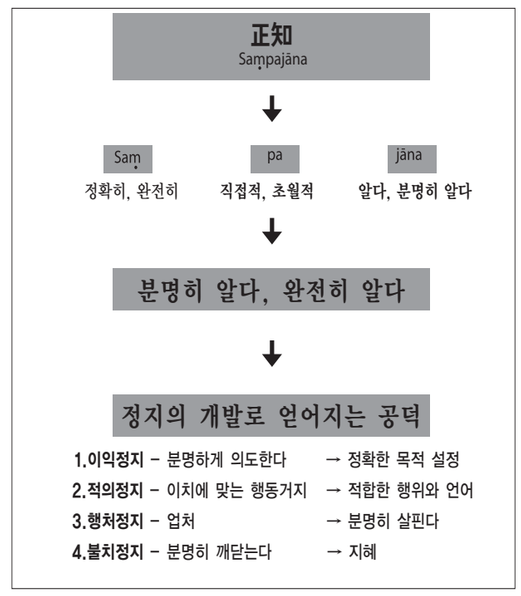
*적의정지(適意正知)

적의정지는 수응정지(隨應正知)라고도 하며 어떤 것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며 이익이 되는 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적당한지 아닌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려해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능력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항상 외부의 영향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적의정지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적합한 시간과 장소, 또 그것을 하는 우리의 능력 등이 적합한지를 살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이나 피해, 좌절 등을 방지하게 한다. 이익정지가 마음을 행위의 목표에 두는 것이라면 적의정지는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실천의 적합 여부를 명료하게 살피는 것이다.

*행처정지(行處正知)

행처정지는 경계정지(境界正知), 혹은 선수행경정지(禪修行境正知)라고도 한다. 선수행의 소연(所緣)이 어떤지를 살피고 소연을 마음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다. '소연'은 선수행의 주제와 대상으로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처'라고도 한다. 사마타[止]나 위빠싸나[觀]를 막론하고 수행자는 지와 관의 업처에 마음을 쏟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참선수행하는 사람은 화두라는 업처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수식관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호흡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언제나 자신이 닦는 수행의 업처를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잡도록 해야하며 업처를 놓쳐버리면 바른 지혜를 닦는 것을 놓치게 된다.



*불치정지(不痴正知)

불치정지는 실상정지(實相正知)라고도 하며 몸과 마음의 체험에 의지하여 사물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즉, 심신 활동에서 그 활동을 이루는 과정을 명확히 관찰하고 이해하여 그 가운데에 '나'라는 것은 없으며 무상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차리는 것이 불치정지이다. 《중아함경》에서는 마치 소를 기르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에 대하여 색깔만 보고도 어느 것이 황소이고 암소인지 알아차리는 것처럼 신념처를 수행하는 사람은 몸의 여러 가지 상황과 경계를 분명히 알아차려야 하며 그럼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신념처 수행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정지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항상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알아차림으로써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를 기르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정지는 사위의관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총지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관성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인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천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룡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행정
☎ 02-889-0211

시법사
기로스승 : 선도원
☎ 032-522-7684

실지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심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인사
주 교 : 정사 지 성
전수 승효제
☎ 032-528-2742

서울 · 경인 교구 일동

전시 공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의 큰 스님 글씨 월정사의 한암 과 탄허"

○ 일 시: 2013. 4. 16~ 6.16(2개월간)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예실
○ 전시유물: 월정사 한암과 탄허 스님 글씨와 관련 자료 80여 점

탄허 큰스님

한암 큰스님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오는 6월 16일(일)까지 테마전시 "한국의 큰 스님 글씨-월정사의 한암과 탄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랜 전통의 사찰 오대산 월정사의 두 큰스님의 글씨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스님의 글씨는 한국 서예 전통 속에서 선필禪筆이라는 한 범주에 있다. 선필은 일격逸格과 개성의 표현 방식으로 깨달음을 표출하는 글씨이지만, 넓게는 스님의 글씨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된다. 근대기와 현대를 살아간 두 스님은 전통적인 유학과 고전을 공부하며 성장했는데, 그들의 글씨에서는 대체로 넓은 의미에서의 선필, 그리고 전통성이 기반이 되어 있다.

글씨들은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으로부터 고전의 경구, 삶의 자세를 담는 등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다. 특히 편지글에서는 글씨를 통해 전해지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 뿐 아니라 잔잔한 한글 글씨가 갖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중생에게 늘 따뜻했던 한암 스님이 나이든 보살에게 답장으로 보낸 정감 깊은 한글 편지, 탄허 스님이 쓴 〈진묵대사 모친 사십구재 추모문〉 은 마음을 울리는 일필휘지 글씨이다.

한암漢岩(1876~1951)스님과 탄허呑虛(1913~1983) 스님은 한국 불교계를 이끈 대표적인 학승으로 근대기 한국 불가(佛家)의 선풍(禪風)과 법맥을 계승하여, 근대 한국 불교를 중흥한 고승이다..

곧은 성품의 한암은 어지러운 세상에 섞이지 않고 오대산에 들어가 불교수행과 학문에 정진하고 제자를 양성했으며, 1.4 후퇴 때 상원사가 소각燒却될 위기에서 자신도 함께 타겠다는 비장한 의지로 사찰과 문화재를 지켜냈다. 이미 출가 전부터 학문에 깊었던 그는 평생을 참선과 학문에 정진한 엄격한 수행자로 살았다. 그의 강직한 성품은 세상 존경을 받아 불교 수행자 뿐 아니라 수많은 학자 문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늘 장사진을 이뤘다고 했다.

탄허는 독립운동가 김홍규의 둘째 아들로, 젊은 한학자였는데, 당시 이미 유불선 등 동양사상에 학문적 깊이가 대단했다. 한암 스님과 3년여의 진리에 대한 문답의 서신 왕래 끝에 스님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화엄경 번역이라는 대 역작을 남겨 한국 불교학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평생을 수행자와 학자로서, 동시에 인재양성을 중시했던 그는 스승 한암의 곧은 깨달음을 계승하며 오대산 밖 세상으로 들어가 불교를 포함한 학문적 진리를 설했다. 학문적 열정과 예지는 국내외 수많은 석학들의 존경을 받았다.

글씨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글씨 속에 담긴 스님의 마음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불자생활법률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저의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보험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상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는 자동차보유자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7. 5. 17. 법률 제8481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등의 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같은 법 제33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청구는 사고발생 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8.선고 99다37856판결, 2005. 10. 7.선고 2003다6774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 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리의 여울

부처의 지혜

▶저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나아감도 없으며 가까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며 가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화엄경)

▶여래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비유하면 허공과 같아서 삼라만상이 의지하는 바이며, 또 여래의 지혜는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가 의지하는 바이니, 비유하면 정법계(淨法界)와 같아서 일체의 성문과 연각과 보살이 의지하는 바이다. 비유하면 큰 바닷물이 사천하의 땅에 흘러듦과 같아서 여래의 지혜는 맑고 밝고 평등하고 둘이 아니므로 분별함이 없지마는 다만 중생의 심행의 다름을 따라 얻은 지혜가 각각 같지 않느니라.(화엄경)

▶여래가 정각(正覺)을 이룬 것은 일체 뜻에 관찰하는 바가 없으며, 법의 평등함에 의혹하는 바가 없으며, 형상이 없고 행함도 그침도 없으며, 한량이 없고 가가 없으며, 두변(二邊)을 여의고 중도(中道)에 머물러서 일체의 문자 언설을 벗어나 일체중생의 심념(心念)으로 행하는 근본성(根本性) 낙욕(樂慾)과 번뇌의 염습(染習)을 아시며, 일념 중에 삼세 일체의 모든 법을 다 아시었음이니, 비유하면 바다가 능히 사천하 가운데 중생의 색신형상(色身形像)을 비추어 나타냄과 같은 것이다.(화엄경)

inwoo
inwoo Wedding Consulting
"특별한 분을 위한 특별한 만남"
인우결혼정보사
매니저 민 세 정 (이윤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차 713호
Tel.02-569-9792 Cell.010-5002-2636

광진데코(주)
Demolition Environment COnstruction
www.gjdeco.com
지정폐기물 · 폐석면 · 사업장폐기물 운반 · 처리
비계구조물 설치 · 해체, 건축시공
(445-84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57-3
TEL. 031-366-9565 FAX.031-360-8987
E-MAIL. juni-1211@hanmail.net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주 소: 부산시 동래구 시실로 19-9(명륜동)
☎ 051-552-0705

만다라요양원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 063-224-4358

초록어린이집

주 소: 강남구 헌릉로 590길 63 리엔파크5단지 APT 관리동1층
☎ 02-445-2326

일원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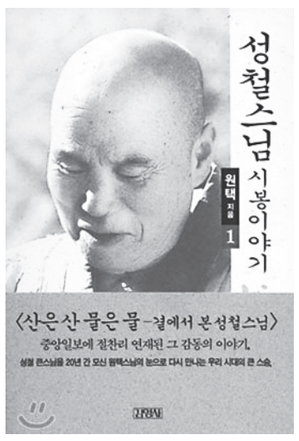
주 소: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서적 에세이

급한 스승과 느린 제자…

찰떡궁합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성철스님을 모시기 전 원택스님은 큰스님이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산신령처럼 굵은 저음에 부드럽고 좋은 말만 골라서 천천히 말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자상하고 인자한 건 당연한 옵션이고요. 그런데 성철스님을 모시면서 그 로망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성철스님은 성격이 급하고 격하기로 꽤 유명한 스님입니다. 화가 나면 벼락같은 목소리로 '새끼'니 '쌍놈'이니 하는 말은 예사고, 뺨도 거침없이 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불같은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원택스님은 스승을 모신 20여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원택스님은, 말귀는 잘 못 알아듣고, 일은 서툴고, 그러면서 입바른 소리는 잘 하는, 그야말로 야단맞기 딱 좋은 스타일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본 적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법정스님은 이 둘을 두고,

"성철스님은 저렇게 성격이 급하고 격하신데, 원택이는 성격이 느리고 느긋하네, 가만 보면 성철스님과 원택은 찰떡궁합 같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대조적인 스승과 제자는 매사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재미있는 얘깃거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둘의 성격이 비슷했다거나 하면 이 책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철스님 시봉이야기〉(김영사, 2001)는 중앙일보에 연재됐던 '산은 산, 물은 물-곁에서 본 성철스님'이라는 제목의 시자기(侍者記)를 엮은 단행본입니다. 성철스님을 스승으로 20여년간 모신 제자 원택스님의 시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또는 겪은 내용으로 성철스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원택스님의 수행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한 엘리트스님이지만 약간 어리숙한 면이 있는 원택스님은 일상에서 실수가 많았고, 성철스님에게 야단맞기 일쑤였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게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시줏돈과 팁'이라는 소제목의 에피소드에서 보면 원택스님이 행자생활을 할 때 공양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스님에게 고마움을 느꼈는지 원택스님에게 그때 돈으로 500원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 돈을 서비스에 대한 팁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팁이나 받는 신세가 되었구나.'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그 돈을 들고 가서 원주스님한테 자초지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철스님한테 불려가서 불호령을 들어야 했습니다. 죄목은 시주 돈을 팁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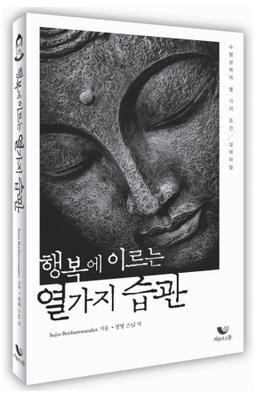
"팁 받는 주제에 꼴좋다. 이놈아, 그 돈은 팁이 아니라 시줏돈이다 시줏돈. 신도가 니한테 수고했다고 팁 준 것이 아이라, 스님이 도 닦는 데 쓰라고 시주한 돈이란 말이다. 그걸 팁이라고 똑똑한 체하니 저거 언제 속물이 빠질란고……, 허어 참."

또 한 번은 성철스님이 작은 가위를 상 위에 내놓은 걸 보고는 그걸로 자기 코털을 깎았는데 불행하게도 성철스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고, 결과는 뺨을 맞는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원택스님의 행동은 꾀가 없고, 불같은 성철스님의 밥이 되기 십상이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읽는 재미가 꽤 쏠쏠한 편이었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깨달음에 이르는 불서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괴로움의 소멸과 열반에 이르는
열 가지 마음공부법



태국의 명상수행가이자 아비담마 전문가인 Sujin Boriharn wanaket의 〈The perfections leading to enlightenment〉의 번역서인 이 책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불교에서의 행복이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닙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이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십바라밀(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바라밀)이니 십바라밀은 '열 가지 수행성취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많은 수행자들은 수행성취를 위하여 용맹정진한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수행은 성취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행의 성취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성취를 위한 바른 조건을 만나게 될 때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성취의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수행성취의 조건 십바라밀'이다. 이 책은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송(小誦)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간으로 한다.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수행자가 자신을 돌아본다면 수행성취의 조건을 어느 정도 구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추가적으로 닦아나가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자 수진 보리하른와나켓(Sujin Boriharnwanaket)은는 태국의 명상수행가로 매일 라디오를 통해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50여년 이상을 불교를 가르쳐오고 있다. 그녀의 책은 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여러나라에서 출판되었다. 저자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불교도협의회(Buddhisam Award Committee)주관의 '걸출한 여성상'을 방콕의 UN본부에서 2007년 3월 수상하였다.

김종열 기자

호연지기를 품고 함께 떠나는 창의적 여행
우리들만의 여행을 기획하고 떠나자~

희망의 길, 도전의 길, 자신감의 길...
자유로운 여행을 통해 자립심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청소년들에게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서 세상을 보는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는 여행
- 여행일정 : 2013년 4월 20일 ~ 7월 21일 중 1박2일 자유선택
- 내 용 : ① 여행날짜, 장소, 일정, 인원 수를 자유롭게 계획합니다.
② 참가자 1인당 7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③ 여행 시 꼭 멘토(만20세 이상) 1인과 함께 동반하셔야 하며 멘토가 없으신 팀은 행사지원팀에서 지정해 드립니다.

여행 진행 과정...
하나. 친한 친구들이 한팀(5명~10명 이내)이 되어 여행날짜, 장소, 일정 등을 자유롭게 계획하기.
둘. 계획한 일정을 여행신청서에 예쁘게 작성하여 보내기.
셋. 여행 일정에 따라 고고씽~
넷. 다녀온 여행후기를 사진과 함께 작성해서 보내기.
다섯. 한마음캠프에 모두 모두 모여 여행경험담도 발표하고 즐거운 놀이공원도 함께~

한마음캠프
참된 나를 찾는 여행에 다녀온 참가자들이 모여 여행경험담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
- 여행일정 : 2013년 7월 25일 ~27일 (2박3일간)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양식은 각 사원 주교 또는 행사접수처로 문의.
접수처 : 중앙교육원 배공주 교무 T. 02-552-1080~3, 010-6661-3593 E-mail. kongjub@naver.com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총기 42년 불기 2557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봉축법요식

일시 : 5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3년 5월 6일
음력 3월 27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2호

불기 2557년 효강 종령 봉축법어

오늘은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인류사의 대 스승이자 성인이신 부처님께서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려고 나투신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뜻은 만 중생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신데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진리의 요체로서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너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나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일깨워 주십니다.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 저 미생물까지도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마음, 청정하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2년(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불기 2557년 법등 통리원장 봉축법어

오늘은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無明)의 어둠에 쌓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길 서원하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더욱 발현해 나갈 것을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중생들이 먹을 것 없으면 먹이를 주어 목숨을 잇게 하고, 병든 사람을 보살펴 주어 편안하게 해주며, 가난하고 고독한 자를 보호하여 주며, 선정을 닦는 이를 위하여 옷과 밥을 보시하여 보살펴 주는, 이 네가지 법이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체중생이 곧 법신 비로자나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억압한다면 대비구세(大悲救世)의 서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있는 중생은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듯 애틋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지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2년(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 등 합장

진언염송의 불꽃을 일으켜 즉신 성불의 대도를 이루자.

제17대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대정사 취임

▲ 4월 30일 총지사에서 열린 취임법회

불교총지종은 2013년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에서 제17대 통리원장 법등 대정사 취임식을 봉행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스승과 교도, 종단 산하 기관장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 앞서 효강 종령 예하는 신임 통리원장 법등 대정사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종단의 종지 종풍을 되살려 종단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며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모든 종무 행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제17대 통리원장의 앞날을 축원했다.

법등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총지종은 진언 염송 수행에 전념하는 스승과 교도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언 밀교의 정통 수행법에 따라 즉신 성불의 대도를 이루는데 미력하나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며 "전국의 총지종 사원에서 진언염송의 불꽃이 일어, 희망과 지혜 그리고 성불의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 총지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종단과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며 바른 수행과 실천을 통한 종단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 경인 신정회(신도회) 김은숙 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법등 대정사님의 통리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모든 중생들의 고통과 번뇌를 해탈케 하는 불국정토를 이루어 '옴마니반메훔'의 진언 염송 소리가 방방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며 신정회의 적극적인 수행 동참을 약속했다.

총지종 마니합창단의 축가를 끝으로 제17대 법등 통리원장의 취임식은 모두 끝났다.

법등 신임통리원장은 취임식 후, 통리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집행부 사령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제17대 통리원 집행부로는 총무부장 인선정사(관성사 주교), 재무부장 우인정사(개천사 주교), 교정부장 원당정사(밀인사 주교), 사회부장 지정정사(흥국사 주교)를 선임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제17대 집행부 프로필 3면〉

총지사=김종열 기자

대비만행의 실천으로 중생구제의 각오를 다지자.

제81회 춘계강공회 총지종 통리원에서 봉행

총기 42년 불교총지종 춘계강공회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봉행되었다. 전국의 총지종 스승은 24일 오전 9시 30분 총지사 서원당에서 총무부장 직부대행 인선정사의 집공으로 개강불사를 봉행했다.

3.7 의궤에 이어 불교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에서 "참석하신 여러 스승님들은 항상 대비만행의 정신으로 수행하며, 중생구제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수행자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도 남김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며 대비만행의 부처님 진리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의 특별 정신교육이 이어졌다.(종령 정신교육 전문 5면) 이번 강공은 외부 초청강사 없이 밀인사 원당 정사의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자재보살의 특징』, 밀교연구소 법경정사의 『상징례 및 49재 천도 불공 불사 법요』, 관성사 인선정사의 『증득과 체득』 강의가 있었다.(강의 요약 7면) 강공회에 앞서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연석으로 열려 중앙 종회에 상정 할 안건들을 심의했다.〈관련기사 3,7면〉

통리원=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종
Buddisht Chongji Order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www.chongji.or.kr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 등

중앙종의회 의장대행	지 광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 성
총무부장	인 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일동
재무부장	우 인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수 현
교정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지 공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종의회 의원	법장원	중앙교육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전당건설 위원회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총기42년 제114회 중앙종회 개최

제17대 통리원장 법등 대정사 만장일치 선출
원의회, 재단이사회, 복지재단이사회도 열려

▲ 제114회 중앙종의회 회의 장면

4월 26일 오전 11시 총지종 통 리원 2층 반야 실에서 총기 42년 제114회 중앙종회(의장대행 지광정사)를 개 최했다.

종회의장대행 지광정사의 집공으로 시작 된 이날회의에서는 종회 의원 17명 중 결원 2명, 불참 2명으로 성원을 이루었다. 이날 중앙종회는 지난 1월 28일 임기가 만료된 제16대 총지종 통리원장을 선출하였다. 제17대 통리원장 후보로 지명된 서울. 경인 교구장 법등정사(총지사 주교)는 전원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3년으로 4월 30일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 취임법회를 연다. 또한 제81회 추계강공 기간으로 원의회, 유지재단이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도 함께 열려 주요 안건을 심의 결의했다.

제17대 통리원 집행부 프로필

▲ 총무부장 인선정사

사회부장, 원의회 의원,
중앙교육원 교육위원,
통리원장 직무대행,
마산 운천사 주교,
현 관성사 주교.

▲ 재무부장 우인정사

중앙종회 의원,
사회부장,
원의회 의원,
울산 실보사 주교,
현 개천사 주교

▲ 교정부장 원당정사

중앙종회 의원,
유지재단 이사,
사회복지재단 이사,
벽룡사 주교,
현 밀인사 주교

▲ 사회부장 지정정사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총지종보 편집국장,
중앙종의회 의원,
사회복지재단 이사,
현 흥국사 주교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 49재 봉행

5월 2일 부산 정각사에서 전국의 스승 및 교도 동참

▲ 5월 2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된 대원 대정사 49재

지난 3월 15일 열반에 든 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대정사의 49재가 5월 2일 부산 정각사에서 봉행되었다. 성화사 주교 지광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49재는 전국의 스승과 교도가 참석했다. 총지종 49재 전통의궤에 따라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대원 대정사님 모습을 떠올리는 많은 교도들이 눈물을 보였다.

총무원장 법등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수행과 교화에 임하시던 대원 대정사님의 높으신 공덕으로 아미타부처님의 인도로 받아,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정리하시고 서방정토로 가셨습니다. 부디 극락왕생을 서원하며, 먼 길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스승 및 교도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49재에 동참한 스승 및 교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대원 대정사는 1948년 생으로 경북 영천 출신이다. 1976년 영남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하고 총기 26년 덕화사 주교 근무를 시작으로 사회부장, 원의회 의원, 전당건설위원, 재무부장, 정각사 주교, 제10대 중앙종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3월 15일 열반에 들었다.

정각사=글 이상록 통신원, 사진 김병구 소장

중대 팔엽원 비로자나 부처님 중심에
진언밀법 복지수행 도량 건설

불교 총지종 괴산 수련원 중원사 착공 불사

▲ 괴산 수련원 지진불사

불교총지종의 오랜 숙원 사업인 괴산 수련원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89-11번지 일대, 가령산 자락 총지종 수련원 자리에 서원당과 숙소, 공양간 등이 들어선다.

4월 11일 오후 2시 중원사 『착공지진불사』에서 총지종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 정사, 대전 만보사 승원 정사, 중원사 정정심 전수, 청주 혜정사 진일심 전수, 광주 법황사 혜안정 전수 및 총지화, 사홍화 기로스승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만보사 승원 정사의 집공으로 총지종 의궤에 따라 진행된 지진불사에서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괴산 수련원 서원당 건립을 염원하는 스승님과 교도 분들의 불공 공덕으로 오늘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총지종의 정통 밀교 진언 염송 수행의 성지가 되기를 서원합니다."며 공사의 원만 성취를 서원했다. 이어 착공식에서 스승들은 첫 삽을 뜨며 모든 공사가 사고 없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했다.

총지종 금강성지(金剛聖地)인 괴산 수련원 중원사는 백두대간 남동쪽으로 내달리는 소백산맥의 가운데 솟은 '속리산' 지맥인 '가령산' 자락에 위치했다. 지형 상으로 둥근 분지를 중심으로 팔방에 연꽃잎이 둘러싼 형태이며, 봉우리마다 수많은 전설이 묻혀있다. 특히 태장계 만다라의 중대팔엽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형상의 지세는 총지종 수행 도량 건립지로 최적의 명당이다.

괴산=김종열 기자.

2008년 만해대상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 통리원 예방

▲ 원정기념관을 돌아보는 로카미트라 법사

2008년 제12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로카미트라 법사가 5월 3일 불교총지종 통리원을 예방하고 총리원장 법등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정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인 총지종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재재가불자대회 등 재가불자들의 신행 및 대회 활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법등 통리원장은 "인도의 불가촉천민 신분해방과 불교개종 운동 등 자선활동을 펼치는 세계적인 불교 인권운동가의 종단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펼치는 로카미트라 법사님의 앞날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방문을 환영했다.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불사법요 개정

▲ 개정된 불사법요

불교총지종 불사 의궤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불사법요'(이하 불사법요)가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4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의식의 장중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천도불사법요는 지난 2010년 밀교연구소(법경정사)에서 개정안을 처음 내놓았다. 지난 3년간 총 여섯 차례의 종책토론회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종령 효강 대종사의 재가를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제81회 춘계강공회에서 개정 불사법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연회가 있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밀교 특유의 각종 진언과 게송을 증보하였고, 다양한 법문독송과 발원문을 실었으며, 기존의 낭송식에 염불식의 풍송을 더하여 동발과 경쇠 등의 법구를 사용키로 했다는 점이다. 개정 불사법요의 주요 내용은 분향소불공, 입관불공, 발인불공, 장지불공(화장장, 매장), 반혼제 천도불공, 49재 천도불공이다. 밀교연구소= 배공주 기자

총기 42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 봉행

신임 정사에 도우(경현철), 혜광(박종한) 임용

▲ 입사 선서를 하는 혜광, 도우 신임 정사

총기 42년 '신규스승 법의 및 금가사 수여식'이 4월26일 서울 총지사에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봉행된 수여식에서 도우(경현철), 혜광(박종한)시무가 신규스승으로 임용되었다.

화령 중앙교육원장은 시무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이어 효강 종령 예하께서 법의와 금가사 및 행위승서를 수여하였다. 인선 지성 통리원장 직무대행은 신규스승들에게 사령장 수여하고 각 각의 소임을 명했다.

도우정사는 입사 선서를 통해 계법을 준수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교법과 국법을 엄수하고, 또한 보살의 행원으로 삼세중에 중생제도를 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엄숙히 선서 했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총지종에 새 정사들이 임용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규 정사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행은 버리고, 환골탈태하여 중생교화에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신규 스승님들께 설 하셨다.

이날 수여식은 제81회 춘계강공기간으로 효강 종정 예하 및 전국의 스승, 교도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도우정사는 영천 단음사로, 혜광정사로 총지사로 그 교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통리원= 장동욱 계장

야단법석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산하기관소식

부산 바라밀 지역 아동센터

토요 경제시장 체험학습

초록 어린이집

▲ 귀여운 정진반 자유놀이시간

▲ 나비가면 동극체험

일원 어린이집

▲ 식목일 체험행사

▲ 코코몽 체험학습

제81회 춘계강공 효강 종령 특별 교육

▲ 통리원 반야실에서 열린 종령 특별 교육

▲ 총지종 승단 특별교육을 하는 효강 종령 예하

제81회 춘계강공에 동참하신 전국의 스승님들에게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이번 강공에서 제가 강조하고 것은 「참스승이 되자」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의궤와 수법이 완전한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 하시고 열반하신 이후, 많은 종령님 들이 법통을 이어왔습니다. 법통은 종령 혼자의 서원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지종 전 스승님들의 보좌를 받아 같이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으로 종단에 몸담은 것은 부처님 법을 온전히 지키고, 교화를 통한 중생구제의 대 원력을 서원하고 출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발심하여 승단의 일원으로 수행 정진하는 이상 승단의 계율을 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와는 달리 승단은 모두가 화합으로 「성불과 중생구제」 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수행 정진하는 곳입니다.

세간에서는 자유를 많이 강조하여,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혁명도하고 투쟁도합니다 하지만 세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불법의 자유는 그야말로 '자유자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는 진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를 통해 얻은 자유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 무한한 것입니다. 이런 자유 자재함은 바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탐심과 치심으로 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총지종 전 스승님들만이 아니라 교도들이 불교적 절대 자유를 체득하기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과 정진의 본연으로 돌아가 참 스승의 위의를 세우자

요즘 우리 종단에서 펼치고 있는 '새 종풍 운동'의 원칙 중 하나가 기꺼이 수순하자입니다. 요즈음 사회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참을성이 많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 생각되면 가차 없이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요즈음 돌아가는 세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을 정화하는데 앞장서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불자들입니다. 서로의 갈등을 융화시키고, 화합의 문을 활짝 열어 청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종단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 종단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스승과 교도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밀교의 당체 설법모두가 법문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원정 대성사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결과 정진을 하라는 교시가 있었습니다. 정진하면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을 받습니다.

스승님들은 정통밀교 총지종 승단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의 초발심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조님께서 세우신 법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국의 크고 작은 서원당에 염송정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조님이 세우신 희사법을 엄격히 지켜왔습니다. 스승들이 엄격히 법과 계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도들의 신행 생활도 청정해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또 이생에 즉신성불의 대도를 만나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스승이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가족의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라도 정진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았을 때 용맹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통해 얻어든 법력은 중생 교화의 지혜로 나타나 그 빛을 발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모두가 참스승의 위의를 바로 세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42년 4월 24일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정각사
주 교 : 전수 정인화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 전수 정원심
☎ 051-896-1578

단향사
주 교 : 정사 경 원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 전수 금강륜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 전수 묘 홍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 정사 서 령
전수 혜안정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 정사 지 광
전수 수심정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5-223-2021

일상사
기로스승: 수 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 전수 법상인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5-755-4697

부산 · 경남 교구 일동

관악산 연주암 금륜보전과 호압사 삼성각

서울의 조산(朝山)으로 주산(主山)인
북한산과 도봉산을 감시 감독하는 관악산

관악산과 광화문 해태상

관악산은 한강 이남에 우뚝 솟은 명산이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와 경계를 이룬다. 높이 623m 로 서울 북쪽의 북한산, 한강 동쪽의 남한산과 더불어 서울을 둘러싼 자연 방벽이다.

관악산(冠岳山)은 그 모양새는 꼭대기가 큰 바위 기둥을 세워 놓은 모습으로 '갓 모양의 산'이란 뜻으로 관악(冠岳)이라 불렀다,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들이 많아 철따라 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를 금강산에 견주어 소금강(小金剛) 혹은 서쪽의 금강산이라 하여 서금강(西金剛)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선이 개국하고 태조 이성계는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한다. 하지만 풍수상 화산(火山)에 해당하는 관악산이 남쪽에 버티고 섰다. 관악산의 불 기운이 궁궐을 침입한다는 풍수상의 가정아래 물의 동물이며, 불을 먹고 사는 해태를 광화문입구에 세움으로 비보책을 세웠다. 당시 궁궐에서 가장 큰 재앙은 화재였다. 창경궁, 창덕궁, 경희궁, 덕수궁 등 조선의 궁궐들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비보책으로 곳곳에 해태와 청동 물 항아리를 만들어둔다.

관악산의 연주대 와 연주암의 숨은 이야기

관악산의 주봉인 연주대는 해발 629m에 위치해 있다.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말사인 연주암이 있다. 〈연주암중건기〉등의 자료에 의하면 서기 677년 신라 의상대사가 관악산에 의상대를 세우고 수행정진하고, 그 아래 관악사를 세웠다 한다. 하지만 당시 유물과 문헌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연주암에는 관악사가 연주암으로, 의상대가 연주대로 이름이 바뀐 연유가 두 가지 전해내려 온다. 그 하나는 고려가 망하자 충신이었던 강득룡, 서견, 남을진 등이 관악산으로 은신한다. 이들은 의상대에 올라 멀리 송도(松都, 개경)를 바라보며 고려 왕조를 그리워 했다. 이를 연유로 사모할 연(戀), 주인, 임금 주(主)를 써 연주대(戀主臺)라 불렸다는 설화가 있다. 둘째로, 조선 태종의 두 아들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에에 얽힌 설화이다. 태종은 왕위를 셋째인 충녕대군(후의 세종)에게 물려주려 하자, 두 대군은 정처 없는 유랑 길을 떠난다. 둘은 관악사를 찾아 왕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려 했으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다. 이 둘은 관악사의 위치가 궁궐을 보기에는 어려워 40칸의

▲ 관악산 연주암 금륜보전(삼성각)

당우를 새로 건립하고, 지금의 자리로 사찰을 옮긴다. 후에 사람들은 이 두 대군의 뜻을 기려 의상대를 연주대로 관악사를 연주암으로 바꿔 불렀다 한다.

일부 무속인 들은 관악산의 산주(山主)가 강감찬 장군이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고려의 충신 포은 정몽주였다. 관악산 자락의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의 탄생지로 지금은 장군의 동상이 들어서있다. 또한 최근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을 기리는 거리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관악산 산신이 자리한
연주암 금륜보전(金輪寶殿,삼성각)

관악산 연주암에 있는 삼성각은 다른 사찰과 달리 금륜보전(金輪寶殿)이란 현판을 달고 있는 네 칸짜리 전각이다. 전각의 내부가 달리 특이한 것이 있나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타 사찰의 삼성각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사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륜보전이라는 이름은 칠성탱화를 칠성여래 부처님을 모셨기에 삼성각 보다는 한 단계 위인 부처님의 거처로 금륜보전 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에도 칠성을 여래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금륜(金輪)이란 허공륜, 풍륜, 수륜(水輪)과 함께 사륜(四輪)을 이룬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지의 구성을 표현한 것으로, 구사론(具倍論) 세간품(世間品)에 설해진다. 그렇다면 칠성과 독성 나한을 금륜을 관장하는 왕으로 보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금륜왕이 머무는 보전(寶殿)이라 칭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연주암 금륜보전 내부

▲ 연주암 금륜보전 산신탱화

금륜보전 안에는 칠성, 독성과 함께 산신이 모셔져있다. 산신탱 화기에는 1929년 주지 재예스님 등이 시주하여 완성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산신의 모습은 상투를 튼 백발의 노인으로 여느 산신과 다르지 않다. 다른 특징은 오른손으로 수염을 쓸어내리며 왼손으로 백익선을 잡고, 바위에 걸터앉지 않고 주칠한 사각 등받이 의자에 앉아있다. 산신의 오른편에는 두명의 동자가 시중을 들고, 왼쪽의 호랑이는 조선 후기 민화의 호랑이를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이다. 제작 연대가 1929년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호랑이의 강한 기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해학적인 민화적 수법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륜보전은 1979년에 연주대와 함께 다시 중수 되었다.

▲ 호압사 산신탱화

관악산의 지맥 삼성산 호압사(虎壓寺)산신

호압사(虎壓寺)는 글자 그대로 호랑이를 누르는 사찰이라는 뜻이다. 관악산을 주산으로 하는 삼성산 자락에 자리한 호압사는 조선 태조2년(1391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이 사찰 역시 조선의 궁궐에 대한 풍수와 관련이 있다. 관악산이 불의 기운이고, 삼성산(당시에는 호암산)은 호랑이의 기운을 가졌다 전한다. 태조와 무학대사는 이를 제압하기위해 광화문에 해태와 남대문을 숭례문(崇禮門)으로 이름짓고, 숭(崇) 자의 뫼 산(山)자를 불꽃으로 표현하였다. 또 삼성산의 호랑이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사찰을 지어 호압사라 불렀다.

호압사는 약사전을 주전으로 하고 그 정면의 왼편으로 삼성각이 자리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전각의 뒤편으로 자리하지만 비보사찰임을 감안한다면 경내로 들어앉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삼성각에 모셔진 산신탱화 역시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고 있다.

산신탱은 여느 산신탱과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가졌다. 두 마리의 호랑이를 그려놓고 산신이 이중 한 마리를 깔고 앉았다. 이는 호압사의 비보기능을 나타내는 주요 상징이다. 산신의 주위로 세 명의 동자가 시중을 들고, 뒤로는 소나무와 선계의 과일인 복숭아가 열린 가지가 그려져 특이하다.

관악산= 김종열 기자.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개천사
주 교 : 정사 우 인
전수 보명심
☎ 053-425-7910

건화사
주 교 :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4-761-2466

국광사
주 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가해
☎ 054-772-8776

단음사
주 교 : 전수 지 현
정사 도 우
☎ 054-333-0526

선립사
기로스승 : 보 원
심지장
☎ 054-261-0310

수계사
기로스승 : 안 주 화
☎ 054-745-5207

수인사
주 교 : 정사 지 공
전수 지회심
☎ 054-247-7613

승천사
기로스승 :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제석사
주 교 : 전수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대구 · 경북 교구 일동

불교총지종 제81회 춘계강공회 봉행

▲ 공식불공을 집공하는 법상인 전수

▲ 승단 특별 교육하는 효강 종령 예하

▲ 신규 임용스승 기념 촬영

▲ 181회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법등 신임 통리원장

춘 계 강 공 교 육 특 집

개정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의 불사법요 설명 및 시연

밀교연구소 연구원 법경 정사

의식은 예절이다. 격식에 맞게 집공하고 품위(品位)와 위의(威儀)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그 예절 속에는 의식의 장중함도 포함된다. 또한 의식은 형식과 내용 뿐만 아니라 독송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어떻게 독송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의식 가운데 망자와 유족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 주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는 천도불공은 어떻게 독송하느냐에 따라 의식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진언을 염송하거나 게송과 법문, 발원문을 독송할때는 망자를 반드시 극락으로 왕생토록 하겠다는 깊은 서원과 정성이 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식(儀式)은 연출이라 할 수 있다. 왜 연출인가 하면 대중들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과 감흥을 줄 수 있도록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출을 통해 큰 감동과 감흥을 일으키는 의식이야말로 무언(無言)의 법문(法門)이자 진정한 천도의식이다. 대개 강의나 설법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언설(言說)을 떠난 무언(無言)의 소리로써 더 큰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다. 독경과 염불소리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얻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의식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의식은 의식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이상의 감흥과 감동이 녹아내려야 한다.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진정한 의식이라 할 수 없다. 의식은 대중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감흥을 자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의식 가운데 49재 천도불공은 망자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법하게 올려야 한다. 모든 불사법요가 그러하겠지만 상장례와 49재 천도불공의 핵심은 '정성'과 '장엄'이다. 정성은 집공자와 유족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장엄은 집공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장엄'을 통해 망자는 극락왕생하게 되고 유족들은 감로의 법문을 얻게 된다.

그 '장엄'은 바로 '소리의 장엄'이다. 그것은 곧 '어떻게 독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독송방법'의 제정이 이번 개정 천도불사법요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상장례와 49재 천도불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승장엄보왕경』의 관자재보살 특징

밀인사 주교 원당 정사

『대승장엄보왕경』은 세존께서 육자대명다라니를 얻은 인연과 육자대명다라니의 의미와 지송공덕에 대하여 밝힌 경전으로 관자재보살과 육자대명왕다라니가 결합하여 변화된 밀교의 관음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는 관자재보살의 특징은 먼저 대위신력과 무량한 복덕을 지니고 있는 보살로 일체 중생들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시무외자입니다.

그리고 육도세계에 화현하여 육도중생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육도중생의 구제자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이름이 보살일 뿐 이미 과거겁전에 성불한 부처이며, 법계에 상주하는 법신불로서 중생을 구제하기위한 대비방편으로 보살의 몸을 나툰 것임을 과거 칠불로부터 들은 얘기와 오백상주의 본생담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여러 가지로 변화하여 나타나 일체 중생들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여, 무량수여래를 보고 법을 듣게 하여 모두 보리도를 이루도록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자재보살의 중요한 성격은 육자대명왕다라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대승장엄보왕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자재보살이 대위신력과 무량복덕을 지니고 지혜와 자비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비원력은 육자대명왕다라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중생들이 육자대명왕다라니의 지송을 통하여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자재보살의 미묘본심을 증득하여 구경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만보사
주 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원화
☎ 042-255-7919

백월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황사
주 교 : 전수 혜안정
☎ 062-676-0744

혜정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국사
주 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중원사
기로스승 : 정정심
☎ 043-833-0399

충청 · 전라 교구 일동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3)

불공견삭관음보살 (不空羂索觀音菩薩)

법경 정사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물건을 지물(持物)이라하는데 그 지물의 의미를 들여다 보면 그 불보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그 불보살의 역할과 공덕력(功德力)을 알 수 있다. 연꽃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하고 금강저(金剛杵)는 굳센 믿음과 불퇴전을, 약병(藥甁)은 치유의 공덕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물(持物) 가운데 특이하게 밧줄을 지닌 보살이 있으니 바로 육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인 불공견삭관음보살(不空羂索觀音菩薩)이다. 견삭을 견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두 가지의 음(音)이 있으므로 불공견삭보살 또는 불공견색보살이라 하는 것이다.

대비(大悲)의 그물과 밧줄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

불공견삭보살의 명호 가운데 '견삭(羂索)' 은 올무 형식의 동아줄을 말한다. 견(羂)은 '올무 견' , '그물 견' 의 한자어이고, 삭(索)자는 '동아줄 삭' 이다. 견삭은 그물이나 밧줄을 의미한다. 밧줄을 지닌 보살이므로 불공견삭관음보살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지물(持物) 가운데 견삭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밧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불공견삭관음보살이 이 지물을 지니고 있을까?

밧줄은 어떤 물체를 매거나 얽거나 연결하거나 또는 끌거나 당기거나 매다는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또 두 가닥 이하로 꼰 것을 줄이라 하고, 세 가닥 이상으로 꼰 것을 밧줄이라 부르고, 또 가늘고 굵은 것에 따라 끈, 밧줄로 구분한다. 그러나 굵고 가는 것의 정확한 한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지름 3mm 이내의 것을 줄로 보고 그 이상을 밧줄로 본다고 한다.

굳이 밧줄의 용도, 끈과 밧줄의 구분을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써 불공견삭보살이 지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견삭관음보살의 공능(功能)을 상징하고 있다. 어떤 물체를 끌거나 매달려면 가느다란 줄 보다 튼튼한 밧줄이 더 제격이다. 불공견삭보살의 지물이 끈이 아니라 밧줄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명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데 어찌 가느다란 끈으로 가능하겠는가. 동아줄로 된 튼튼한 밧줄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불공견삭관음보살의 밧줄은 바로 견삭보살의 공덕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공덕력은 바로 무명중생들을 단단히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관세음보살다운 자비로움의 밧줄이다.

일면(一面) 육비(六臂)의 불공견삭관음보살

불공견삭보살은 대비(大悲)로써 번뇌와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그물과 밧줄이다. 관세음보살의 대비(大悲)는 그물과 밧줄로 비유되고, 구제받아야 할 무명중생은 새(鳥)에 비유된다. 중생인 새를 자비의 그물로 포획하는 보살이 바로 불공견삭보살이다. 또 중생을 고기(魚)에 비유하여 대자비의 낚싯줄로 중생인 고기를 낚아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새나 고기를 포획하려면 단단한 그물과 밧줄이 필요한 것처럼 중생구제를 위한 대자비(大慈悲)의 밧줄은 없어서는 안되는 지물(持物)이다. 단단하고 튼튼한 대자비의 그물과 밧줄이다.

이와 같이 대자비(大慈悲)는 모든 변화관음보살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키워드이다. 관세음보살이 근원적으로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관음보살들이 제각기 다른 지물을 지니고 있지만 중생구제를 위한 마음은 한결같다. 단지 다른 지물과 방편을 쓰고 있을 뿐이다.

아모가 파샤(Amogha pasa)는 '헛되지 않도록 원을 이루어지게 한다' 는 뜻

이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모가 파샤(Amogha pasa)' 라고 한다. 아모가(Amogha)는 '불공(不空)' 이란 말인데, ' 헛되지 않음' '확실한'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보살을 믿으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 반드시 원(願)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파샤(pasa)는 '견삭' 이란 말인데, 인도에서 전쟁이나 사냥할 때 쓰던 무기의 일종으로 고리가 달려있는 밧줄로 된 올가미를 말한다. 이 올가미에 걸리면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생과 억압의 무기인 견삭을 불공견삭관음보살은 자비를 베푸는 도구로 변용(變用)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계신다. 그 자비의 올가미로 한 사람이라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던지고 밧줄을 잡아당긴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일체중생들을 한 명도 빠뜨지 않고 모두 구제하겠다는 대자비의 발심이 바로 불공견삭관음보살의 지물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견삭관음보살의 경전상의 근거는 『불공견삭신변진언경(不空羂索神變眞言經)』 이다. 이 경에서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의 궁전에서 과거에 가르침을 받은 바 있는 '불공견삭심왕모다라니진언(不空羂索心王母陀羅尼眞言)' 의 공덕을 설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공견삭보살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 경에 보면 주문을 외우는 자는 현세에서 20가지의 공덕을 얻고, 임종할 때는 8가지의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 또한 이 경전에는 개인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이익을 설하고 있다. 즉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불공견색심왕모다라니진언' 을 외우면 국토 내의 모든 사람들이 안온하게 지낸다고 한다.

그래서 진호국가(鎭護國家)를 강조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보살을 중히 여기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주목 받고 있지 않지만 강원도 낙산사의 보타전의 칠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불공견색관음보살이 봉안되어 있기도 하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염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진호국가(鎭護國家)의 의미라고 보여진다.

견삭(羂索)은 중생구제의 도구이자 관세음보살의 공덕력을 나타낸다

이 불공견삭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불공견삭관음보살은 일면사비(一面四臂), 삼면사비(三面四臂), 삼면육비(三面六臂), 십면팔비(十面八臂), 십일면이십비(十一面二十臂)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대체로 몸은 백색(白色)이고,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화불(化佛)이 새겨져 있다. 중생을 성불로 이끌려는 발원의 의미다.

존상(尊像)은 일반적으로 삼면삼목사비(三面三目四臂)를 취하고 있다. 세 개의 얼굴과 거기에 각각 세 개의 눈이 있고, 네 개의 팔을 지니고 있다. 왼쪽의 첫 번째 손에는 활짝 핀 연꽃, 두 번째 손에는 견삭(羂索),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염주(念珠), 두 번째 손에는 조병(澡甁)을 지니고 있다. 이 여섯 가지의 지물(持物)은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견삭(羂索)으로 중생을 건져내고, 조병(澡甁)으로 중생을 씻기며, 염주(念珠)로써 정진수행케 하여 구경에는 만개한 연꽃처럼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관(寶冠)의 화불(化佛)은 깨달음, 즉 성불(成佛)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방편은 당연히 견삭이다. 견삭으로 중생을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한 명도 빠짐없이 건져내는 것이 불공견삭관음보살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직무(職務)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불공견삭관음보살의 지물인 견삭(羂索)은 바로 중생구제를 위한 도구이자 견삭보살의 공덕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음에 각자 자비의 밧줄을 하나씩 가져보자. 다음호에서 준제관음보살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면(一面) 육비(六臂)의 불공견삭관음보살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 사 장 지 성
이 사 법 공
이 사 선도원
이 사 인 선
이 사 강경중
이 사 김무남
이 사 정영문
감 사 안 성
감 사 법 우
감 사 박정선
교 장 장재계
교 감 탁상달
사무국장 법 선
행정실장 석동훈
교직원 및 행정직원 일동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교무실 : 051-555-4458
행정실 : 051-556-0281

다시 읽는 우리시조

지리산 양단수를

지은이: 조 식(曺植)

지리산 양단수를 예전 듣고 이제 보니
복사꽃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도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딘인고
나는 여긴가 하오라

두류산 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보니
도화 뜬 밝은 물에 산영조차 잠겨세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메요
나는 엔가 하노라

명 조식은 1501년 퇴계이황과 같은 해에 태어난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성리학의 대가이다.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은 한해를 사이에두고 나란히 세상을 떠난다. 참 묘한 인연이다.

두 사람은 자신의 학문으로 일가를 이루었지만, 걸었던 길은 다르다. 퇴계가 벼슬에 올라 중앙관료로 활약한 반면, 남명은 평생을 향촌(鄕村)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배운 바를 실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 시는 지리산 쌍계사 부근의 경치를 노래한 것이다. 지리산의 풍광만으로도 아름다움에 흠뻑 젖었는데, 흐르는 계곡물에 복사꽃 잎이 떠내려온다. 작자는 그 꽃잎을 내려다보니 물속에 거꾸로 비친 지리산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계곡의 물은 실제의 산과 물속에 비친 산을 가르는 듯 이어놓는다. 아름다운 황홀경에 빠진 작자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武陵桃源)란 생각을 떠올린다. 무릉도원은 도연명의 글에 나오는 말로 동양에서는 이상향, 낙원, 마음의 고향을 뜻한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鐵造毘盧遮那佛坐像)
시 대: 통일신라 | 재 질: 철재(鐵材)
소장기관: 철원 도피안사

▲ 철원도 피안사 비로자나불

강원도 철원 도피안사는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도선대사가 창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도선대사가 철조비로자나불을 만들어 철원의 안양사(安養寺)에 모시려고 했으나 운반 도중에 불상이 없어져서 찾아보니 도피안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세우고 불상을 모셨다고 한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는 철로 만든 불상이 크게 유행했다. 이 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로, 불상을 받치고 있는 대좌(臺座)까지도 철로 만든 보기 드문 작품이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갸름한 얼굴은 인자하고 온화한 인상이다. 평판적인 신체에는 굴곡의 표현이 없고, 양 어깨를 감싼 옷에는 평행한 옷주름이 형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몸에 비해 가냘픈 손은 가슴 앞에서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일반적인 손모양이다. 불상이 앉아 있는 대좌는 이 시기에 가장 유행한 형태로, 상대와 하대에는 연꽃무늬를 새겼으며 중대는 8각을 이루고 있다.

불상 뒷면에 신라 경문왕 5년(865)에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남아 있어서 만든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료제공=문화재청

VISUAL 불교총전

제47화

글/그림 정수일
http://www.drawing라울라.kr

내용참조: “불교총전” 타인에 대한 덕의 p578

총기 42년 ·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수석부회장: 보 덕 제 노 진 숙
총 무 : 이 인 성 복 지 원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신 인 록
총 무 : 정 남 선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한 영 란
총 무 : 임 연 옥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및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신정회 일동